정교회주보

제2512호

2025.02.1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탕자 주일
성 빰필로스 순교자
성 니콜라이 카삿킨 일본 대주교

(제1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고린토 전 6,12~20 …… (봉) 418
- 복음경 : 루가 15,11~32 …… 13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거룩한 감실 (성체성혈함)

감실(왼쪽 사진)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된 금속함으로, 제단 중앙에 놓인 복음경 뒤편에 자리합니다. 감실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모셔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 대 목요일 성찬예배에서 집전 사제는 어린양 부분을 두 몫 준비합니다. 성체성혈성사를 통해 축성된 한몫은 이날 신자들이 영성체성혈합니다.

또 다른 한몫은 성체를 성혈에 적셔서 잘게 잘라 건조한 다음, 감실에 모셔둡니다. 이 성체성혈은 주로 성찬예배에 참례할 수 없는 병자나 긴급한 상황을 맞은 임종을 앞둔 신자를 방문하여 받아 모시게 합니다.

성체성혈을 모시고 신자를 방문할 때는 이동용 감실(오른쪽 위아래 사진)을 사용합니다. 사제는 이동용 감실을 가슴에 품고 가는데, 말을 삼가고 기도하며 이동합니다. 이렇게 신자를 찾아가 성체성혈을 전하는 것은 제1차 세계 공의회의 카논 13조에 명시된 정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돌아온 탕아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어떤 사람은 충고나 지시에 대답은 곧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지 않아 결국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하고 반항하며 듣지 않다가 후에 잘못을 깨닫고 따릅니다. 당장 '네'하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내키지는 않지만, 책망을 듣기 싫어서 또는 어떤 이익에 부합되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반항하다가도 후에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진심으로 따르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아의 비유에서 이 같은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집안일을 잘 돌보았으나 작은아들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받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실컷 놀고먹고 방탕하게 지내던 작은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자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풍부한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 용기를 갖고 아버지께 청하여 그 집의 하인으로라도 써 주십사 간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진실한 회개의 용기에 아버지는 매우 반갑게 사랑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언젠가 없어질 재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어질 물질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인 아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이제 마음 가운데 숨어 있던 시기, 질투, 욕심의 본모습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차지가 될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해 순종하며 지내는 척했던 것이지,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며 함께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먼저인 나를 무시하고 둘째인 동생을, 더군다나 탕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환대하는지를 이해 못하겠다며 반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풍부한 사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루가 15,7)."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 한 과정이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느님을 배신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풍부한 사랑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아에게처럼 영적, 육적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겸손을 추구하라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4세기)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행하는 것에 동화되며, 당신의 행동에 따라 형태와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당신의 외모와 옷차림, 걸음걸이와 앉는 방식, 음식과 잠자리, 집과 가구들,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한다.

말과 노래, 친구와의 교제 또한 절제되고 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묘한 말들로 과시하지 말고, 거만하고 부담이 되는 말을 하지 말라. 다만 모든 것에서 지나침과 과도함을 제거하라.

친구에게는 선하게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며, 오만한 이는 참아주고, 멸시받는 이에게는 자선을 베풀라.

고통을 겪는 이는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미소로 응답하며, 모든 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라.

당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신이 먼저 스스로 책망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주길 기대하지 마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말고, 성급하고 화난 말투로 말하지 말며, 마치 당신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영적으로 잘 인도해주라.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당신은 인간적인 영광을 피하려고 애써라.

따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바람으로 당신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

진정으로 위대한 관객은 하느님이시다. 당신의 의욕과 포부를 하느님께로 돌려라. 그분이 값진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태오 20,27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치 겸손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겸손을 추구하라. 겸손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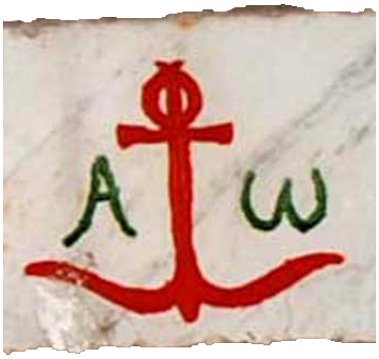
그리하면 당신은 진정한 영광의 길,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그분의 제자로서 천사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오 11,29)

주간 예배 안내

* 2월 17일(월)
  한국 첫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순교자
* 2월 22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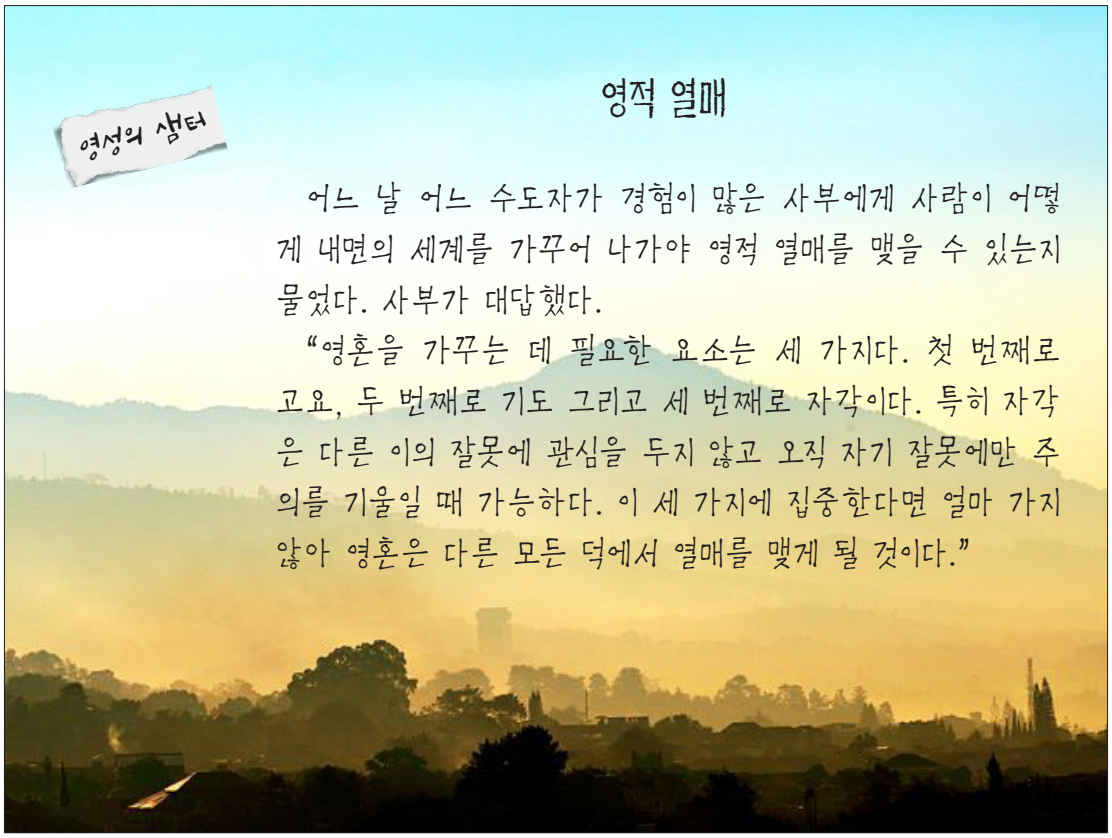


알 림

▦ 대교구 미디어 사업 후원 요청

대교구가 계획하고 있는 미디어, 방송 사업에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매체는 SNS와 인터넷 라디오 등입니다. 우리 대교구 역시 정교회를 보다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선교활동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영상 촬영과 인터넷 라디오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카메라, 마이크 등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정교회 소기도서' 재발간

품절되어 구매가 불가능했던 '정교회 소기도서'가 재발간되었습니다. 내용과 가격(10,000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이나, 정교회출판사(02-364-7020)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